

세희/망대
길



기획특집
기가 IoT 홈서비스 출시

현장24시
고도古都 유럽을 향해 KT GiGA 솔루션이 진출한다
KT TU 카툰
청원휴가 사용 설명서
KT TU 레이더
2016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명 때리기의 가치

얼마 전 한강에서는 재미있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 한강 명때리기 대회입니다.

'정보의 흥수 속에 흑사 당한 우리의 뇌를 쉬게 하자'는 주제로

무료함과 즐음을 이겨내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색 대회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명 때리기'를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 없이 넋을 잃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 때리기를 통해 우리 뇌는 복잡하게 얹혀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명 때리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명 때리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잔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듯, 우리 뇌 역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휴식은 일하고 남는 시간에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휴식하고 재정비를 마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이 솟아날 것입니다.



Contents

vol. 25

시호/망대
길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기가 IoT 홈서비스 출시 팝업 스토어 이벤트	
KTTU 레이더	12	2016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이슈 & 사회	14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같은 VR의 세계	
현장24시	16	고도古都 유럽을 향해 KT GIGA 솔루션이 진출한다	
KTTU 카툰	20	청원휴가 사용 설명서	
KTTU 클로즈업	22	KT wiz 팬이 알아야 할 KT 위즈 파크 꿀팁 완전정복	
공감코칭	24	2060 샐러리맨, 논어論語에서 길을 묻다	
KTTU 리서치	26	2016 하계휴양소	
길따라 멋따라	30	우리나라 해안도로 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KT TRADE UNION NEWS

2016년 2분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네트워크부문 해외견학 시행 등 6개 안건 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31일(화) 분당 본사에서 2016년 2분기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그간의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네트워크부문 현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학 프로그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노사는 ▲네트워크부문 현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학 시행 ▲2016년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수련관 노후시설 개선계획 ▲방진마스크 지급계획 ▲'가정의 날' 활성화 계획 ▲2016년 UCC 글로벌 봉사활동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네트워크부문 해외견학 프로그램은 성과창출 동기부여와 고객인식 1등 확산을 위한 기관별 우수사원 포상 및 격려 차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선발대상은 회차 별 10명씩 총 50명이다. 시행시기는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방진마스크 지급은 C부문, 네트워크부문 등 외근 조합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노사협의 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안건으로 수렴하면서 상정됐다. 지급수량은 1인당 10개 기준이며 부서단위 보관후 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현장 조합원에게 즉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으나 부서장 솔선수범 및 부서 분위기에 따라 활성화의 차이가 존재했던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 감성케어를 위해 적극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기존의 '가정의 날' 명칭을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하고 안내방법 개선과 KBN 활용 확대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을 지속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외에도 하계휴양소의 고급화를 꾀하고 수련관

의 안전진단 시행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며, 2016년 UCC 글로벌 봉사활동을 오는 7월 중순 무렵 추진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했다.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 공사 추진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중앙노사협의회(2016. 3.31)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사간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한다.

- 추진목적 : 조합원 복지증진
- 4대 복지공간 : 구내식당, 사워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 주요 환경개선 사항
 - LED 교체
 - 불량시설 교체
 - 천정, 바닥, 벽면 도색 또는 수리 등
- 대상시설 : KT사옥 55개ビル딩



1등KT분과위 열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활성화 및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등 논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4일(화) KT 본사에서 '존경받는 1등 KT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 안건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사는 먼저 ▲우리가족 孝-Day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 받았다. 우리가족 孝-Day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기수가 운영됐으

며 총 59가족 334명이 참여했다.

계속해서 노사는 부모 직장체험을 통한 가족간 이해와 직원 자부심 제고를 위한 ▲오피스 커밍데이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행사운영 결과, 부모직장 이해도와 학습 동기부여를 높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의결안건으로 △수련관 노후시설 개선계획 △2016년 KT하계 휴양소 운영계획 △방진마스크(C부문, 네트부문) 지급 계획 △'가정의 날' 활성화 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수련관은 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운영상 시급한 분야를 선별하여 우선 대개체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하계휴양소는 지난 해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교체 등의 휴양시설 점검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계휴양소는 객실단가를 상향하여 휴양시설의 고급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하계휴양소는 7월 15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총 객실은 330객실이다.

2016년 하계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추진



2016년 하계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추진목적 : 조합원 자녀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성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
- 신청대상 : 현재 중학교 재학 자녀를 둔 KT 직원
 - 단, 부장, 센터장, 지사장 이상 제외 (노동조합은 지부장 이상 제외)
 - 본사(사업부서/지원부서 포함) 팀장은 지원 가능
 - '12년, '13년, '14년, '15년 기 당첨자 신청불가
- 신청기간 : 2016년 5월 23일(월) ~ 6월 2일(목) 18시까지 (11일간)
 - 신청기간 연장 및 추가 신청접수 불가
- 신청위치 : <http://ibene.co.kr/kt>
- 선정인원 : 30명
- 대상자 선정 : 신청마감 후 각 본부별 대상인원 추첨
- 선정 대상자 발표 : 2016년 6월 10일(금), Kate 전사 게시판 및 KBN
- 캠프일정 : 2016년 7월 21일 ~ 8월 18일 (예정)
 - 프로그램 : 실질적 학습효과 및 글로벌 체험(4주)
 - 어학연수 : 캐나다 썸머 스쿨링 프로그램 참여 및 홈스테이 등
 - 문화체험 : 유명대학(UCLA, 버클리), 주요도시 및 자연탐방 등

* 본부별 선정인원 T/O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간부로서의 소양 및 전문성 강화



KT노동조합은 지난 5월 11일부터 KT그룹 원주아카데미에서 2016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과정은 ▲동영상 시청 ▲규약 · 규정 및 인사 · 복지제도 ▲다온플랜 사업 ▲심리상담 및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 ▲상시 위기시대와 조합간부의 실천과제 ▲지부활동 소개 ▲평가/분반토론 등으로 실시했고 내·외부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조합간부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지 그것이 조합원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그러한 모습이 간부 개인뿐 아니라 조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며 조합원의 자부심과 참여를 이끌 어내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간부는 현장이라는 바다의 등대나 사령탑과도 같다"고 말한 뒤 "현장에 돌아가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소한 하나라도 먼저 솔선하여 조합원에게 당당히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조합간부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분임토의 등을 통해 지난 활동을 반성하여 조합활동에 더욱 힘을 쏟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제부도 인근 화성송신소 오토캠핑장 개장 안내



KT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연친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제부도 인근에 위치한 화성송신소

내 오토캠핑장을 개장했다.

- 캠핑장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101-4 KT 화성송신소
- 신청 : jaegoo.kang@kt.com 이메일 선착순 접수
- 접수시 입소자, 연락처, 소속, 입소인원, 일정 등 표시
- 텐트대여 : 1박당 1만원(4~5인용)
- 이용료 1만원 : 음식물 처리, 일반쓰레기 봉투 및 분리수거 등 비용
- 유의사항 : KT직원에 한해 이용가능, KT직원을 동반하지 않은 외부 인은 이용불가 (신분증 지침)
- 이용문의 : 강북지방본부 강재구 정책국장 010-3452-0404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침과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5만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4.13총선 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은 반성과 죄신은커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지침을 노동시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공공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실적 쌓기 경쟁과 조직의 줄 세우기만을 가져와 결국 공공성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적극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정애 더민주당 의원,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더민주당 의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민주당 당선자 등이 나서 격려와 연대의 발언을 이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종각, 광교를 거쳐 청계천 한빛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 대상 ‘오피스 커밍데이’ 확대 시행

KT노동조합은 부모 직장체험을 통한 가족 간 이해와 조합원 자부심 제고를 위해 지난 3월에 충남/충청네트워크 지역본부 조합원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 그 결과 만족도가 높고 자녀 체험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추진방향
 - 네트워크관제센터 : 링모션(손동작을 이용한 데이터 추출기법), 문자 악성코드 대응 체험
 - KT스퀘어 : VR 컨텐츠, 홈 IoT(웹캠) 제품 등 수도권은 애구응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
 - 가족별 테이블석(지니존/BC라운지존) 및 간식 제공
 - 지방본부별 추진일정(인원수)
 - 강원(5) / 충북(5) : 5월 21일(토)
 - 수도권 강북(10) : 5월 28일(토)
 - 전남(6) / 전북(4) : 6월 11일(토)
 - 수도권 서부(10) : 6월 18일(토)
 - 부산(5) / 대구(5) : 7월 9일(토)
 - 수도권 강남(10) : 7월 23일(토)
 - 제주본부는 우수 조합원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
 - 선정방법
 - 소속 지역본부와 지방본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정인원 T/O별 추천 선발
- ※ 운영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5.1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26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5만 조합원 서울광장 운집

KT노동조합은 5월 1일(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지침철폐! 노동법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 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KT노동조합은 4월 28일(목)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앙본부 각 실장 및 12개 지방본부위원장과 조합간부, 그리고故 김낙성, 故 김왕찬, 故 오용철, 故 김양중, 故 윤준상 등지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열사들께선 후배의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야 할 자리를 결코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동지애와 실천으로만 인정받겠다는 신조를 꺾지 않으셨다”고 회상한 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열사 정신은 바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를 목숨과 같이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사에게 바치는 추모시 낭송이 이어졌다. 서부지방본부 유미선 여성국장은 시를 통해 “척박한 이 땅의 억압과 차별, 모두 불태워 당신의 뜻과 정신을 환히 밝히겠다”고 낭송,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유가족 대표로 답사한 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 김낙은 씨는 “올해도 잊지 않고 고인을 기억해 주는 KT노동조합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먼저 자신 열사들의 신념과 용기를 기리며,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문화 선진화분과위원회 회의 열려, 노사상생센터 실적 등 경과보고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25일(월) 분당 사옥 회의실에서 노사문화선진화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상생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사는 먼저 ▲노동조합의 회사 가치창출 활동 경과와 관련하여 모바일 판매, 망분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등 지난 해 지방은행과의 MOU 체결 이후의 주요실적을 보고받았다. 노사는 UCC 회원사와의 영업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 경영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노사는 이어 글로벌 환경캠페인 선도적 참여 등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성화 안건의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회원사 연합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나눔 마일리지’ 제도 전사 오픈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신규 도입할 ‘나눔 마일리지’ 제도는 봉사활동 1시간 당 1마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사는 또 ▲노사 상생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주요 개선사례와 성

과를 공유했다. 1/4분기 노사상생센터의 접수 건수는 총 462건으로 상생센터는 그간 △내부 유사 채널과 운영 차별화 지속 △노사 공동 고충해소 노력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업무 몰입 환경 조성 기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실행을 통해 ‘직원인식 1등’ 고충처리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외에도 마케팅 동향을 공유하고 ktwiz 애구 홈·원정 경기 입장권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응원참여를 유도한다는 ‘2016년 KT그룹 빅토리더스 응원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주고 받았다.

노동조합, 7회 국회 UN SDGs 포럼 참석 빈곤퇴치분야 지속가능 발전목표 논의



KT노동조합은 4월 15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 UN 지속가능 발전목표 (UN SDGs)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UN SDGs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및 정의화 국회의장과 KT노사를 대표해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과 이대산 경영관리부장 및 CJ, 인텔코리아, LG, 현대차, 코오롱 등의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에 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를 초청하여 빈곤퇴치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 보편적 문제 등 17가지 목표로 시행되는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국회 UN SDGs 포럼은 주요 기업과 노동조합이 민간자문위원을 맡아 SDGs를 위한 민간-국회 공동 이행체 제를 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의회 SDGs 협의체다.

또 UN의 주요기구 및 위원회와 다양한 동반관계를 맺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SDGs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UN 차원의 특정한 문제 해결 ·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UN SDGs 포럼은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여야 43인의 국회 의원이 참여하여 2014년 2월 설립했고, KT는 국회 SDGs 포럼 대표사로 2015년 임명됐다.

당신의 가정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GiGA IoT Home 서비스 출시

'Fun & Care'라는 모토로 1등 홈IoT 세상 구현을 위한
기가 IoT 서비스가 출시됐다.

첨단 기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홈IoT 서비스는
가족단위와 1인가정 소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향후 IoT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말 그대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사물은 인간이 수고와 노력을 들여 직접 조작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물이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고 나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자전거에 조그마한 단말기를 부착한다고 생각해 보자. 도난 방지를 위한 진동 및 알람, 배터리 완전 방전에 대한 예고 기능을 알아서 척척 수행하게 된다. 행여 자전거를 도난 당해 멀고 먼 장소에 숨겨져 있더라도 정교한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자전거뿐 아니라 이미 전구, 보일러, 가스 밸브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다양한 사물을 선보인 상태이며, 점점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은 늘어나고 있다. 기상 시간에 맞춰 음악이 커지고 커피포트가 저절로 물을 끓이며 외출할 때 가스 불을 켜 놓고 나오지 않았나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SF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성장 절벽에 부딪힌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확장하는 등 IoT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KT 역시 2016년을 홈 IoT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 15일 과천 서울랜드, KT의 기가 홈 IoT 서비스 상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가 차려졌다.



홈매니저, 아이들과 1인가정의 필수 아이템

"아이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홈캠을 통해 엄마가 대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가정주부)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는 꼭 설치해야 할 아이템 같아요."(독신여성)

체험부스를 돌아본 고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해주는 가스 안전기, 플러그에 관심을 보였다. 원격 가스밸브 잠금 기능으로 화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가스 안전기'는 주부들로부터 똑똑한 아이템이라는 반응을 얻으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가스 안전기와 함께 주부들의 이목을 끈 것은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자동제어 전원 플러그다.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 전송하는 똑똑한 시스템인 자동 플러그 기능은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할 경우 바깥에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기가 IoT 홈 서비스 팝업스토어를 찾은 주부들은 지금 당장 집에 설치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가스 안전기와 자동 플러그 시스템을 손꼽았다.

경기도 부천에서 아이들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찾는 김경미 씨는 "가스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면서 "어린 사내 아이들이 집안에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평소 노심초사한 적이 많았는데 홈캠을 설치하면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KT의 기가 IoT 홈 서비스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보안에 대한 관심은 팝업 스토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단연 관심을 나타낸 것은 창문이 열렸을 때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열림 감지기 시스템이다. 잠금이 설정된 창문이나 문이 외부인에 의해 열리면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며 홈캠을 통해 방안의 모습을 실시간 전송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로 잠겨진 디지털 도어락은 침입자가 아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이용할 때도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빠지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꼼꼼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여자 친구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이윤미 씨는 "오피스텔에 기본적으로 보안장치와 CCTV가 있긴 하지만 방안에서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했다"며 "이번 기회에 인터넷과 연동해 저렴한 가격으로 홈서비스 상품을 이용해보고 싶다"고 KT의 기가 IoT 홈서비스 상품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01. GiGA IoT Home 팝업 스토어 내부 모습

02. GiGA IoT Home 상품

03. 홈매니저 상품 설명을 듣고 있는 고객의 모습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관리도 한방에

KT에서 출시하는 상품 기가 IoT 서비스의 기본 패키지는 디지털 도어락, 플러그, 가스안전기, 열림감지기 등이 기본으로 구성된 홈 매니저 서비스다. 어린 자녀들 둔 맞벌이 부모와 부모님 댁의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그리고 주거 침입이 걱정되는 1인 가정 등이 주요 고객이다. 홈매니저 서비스와 더불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가 IoT 홈캠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은 물론 애완동물 혼자서 집을 지키는 가정까지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흐름에 맞춰 출시된 기가 IoT 헬스 밴드는 보다 간편하게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해준다. 기가 IoT 헬스 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올레 TV를 연결해 큰 화면으로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손리의 동영상을 확인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꾸며진 서비스다. 걸음 수, 달리기한 거리, 소모 열량 등 운동기록을 실시간 분석하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기기 IoT 헬스 밴드와 궁합이 잘 맞는 서비스는 기가 IoT 헬스 체중계/체지방계가 있다. 헬스클럽을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체중, 체지방

률, 내장지방 수준, 기초대사량, 근육률, 체질량, 체수분률, 골량 등 8가지 데이터를 측정해 건강관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내 몸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다.

집안에서 골프를 즐김으로써 운동효과와 오락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기가 IoT 헬스 골프 퍼팅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레 TV를 연결해 실제 골프장 퍼팅 그린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골프연습이 가능한 가상의 골프서비스다. 최상의 그래픽으로 실제와 똑같은 퍼팅 방향과 거리, 속도가 표출되는 필드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골프 퍼팅과 함께 활동적인 서비스인 기가 IoT 헬스 바이크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주부, 수험생 등에게 안성맞춤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헬스바이크의 연동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코칭하고 즐거운 바이크 게임을 통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레 TV와 연

결해 바이크의 움직임에 따라 폐달을 밟고 운전대를 조절하며 게임의 미션을 달성하는 과정이 매우 박진감 넘친다.



- 01. 헬스바이크를 재미있게 타고 있는 어린이
- 02. 골프퍼팅 서비스를 체험하는 고객
- 03. IoT 홈서비스팀 조합원과 행사운영 요원들
- 04. 에어볼 뽑기 이벤트에 참여중인 어린이



IoT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공략 확대

KT가 만들어가는 1등 홈 IoT 세상 Fun & Care를 콘셉트로 진행된 팝업스토어는 위에서 알 수 있듯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KT는 현재까지 출시된 기기 IoT 상품에 이어 삼성전자와 함께 에어컨, 공기청정기, 오븐, 세탁기 등을 개발하고 귀뚜라미, 알톤스포츠, 동부화재 등과 MOU를 체결, IoT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도난위험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서부터 일반 사물 영역까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oT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약 1천2백 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oT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2조 3천억원에서 2022년 22조 9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과 확산, 융합제품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올해까지 총 300여 종의 홈 IoT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내 50만 홈 IoT 가입기기를 달성하고 2018년까지 IoT 시장에서 1위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비해 저전력, 저비용, 저용량인 소물인터넷(IoST: Internet of Small Things) 전용망 기술을 활용해 2018년까지 인터넷 연결 사물 수를 40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IoT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시장에 혁신을 앞당길 KT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Interview

**“조합간부 역량교육은
나 자신에게 기름을 칠하는 계기”**

수도권강남고객본부
박현진 지부장



름과 위기에 대해 심도 높은 문제의식을 조합원들에게 던져주었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던 외국과 국내 경제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조선과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물밑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위기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체교육에서의 진지함은 분반토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현장 지부에서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지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희로애락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진지한 정세교육에 이어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눈 지부장들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교육은 이은아 부센터장이 진행한 심리상담이다. 책임감이 따르는 노조활동과 더불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업무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담사례를 청취하며 지부장들은 현장 조합원들을 대하는 요령을 하나둘씩 체득할 수 있었다.

매 기수 교육현장을 찾은 정윤모 위원장은 “기로에 서있는 노동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지부장 및 조합간부들이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태도에서 벗어나 중견간부로서 확실한 정책과 지향점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을 위해 지부장이 갖춰야 할 소통의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조별 토론에서 지부장들의 고민은 하나로 모아졌다. 결론은 항상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조직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우는 것. 조합간부 역량교육에 참가한 288명 지부장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지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KT그룹 원주아카데미에서 치러진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현장에선 각 지부의 사정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지부장들의 열띤 공론의 장이 열렸다.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의 목적은 간부로서의 소양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5차에 나뉘어 각 2박3일 동안 치러진 이번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은 ▲동영상시청 ▲규약·규정 및 인사·복지제도 ▲다온플랜 ▲심리상담 및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 ▲상시 위기시대와 조합간부의 실천과제 ▲지부활동 소개 ▲평가/분반토론 등의 자체 진행과 함께 내외부에서의 전문강사를 특별 초청해 수준 높은 강연의 마련됐다.

이번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은 집체교육의 전문성과 분반토론의 세심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조자명 소장이 진행한 ‘상시 위기시대와 조합간부의 실천과제’는 글로벌 경제의 흐



현장을 이끌어 갈 간부 양성의 디딤돌

2016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에서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존재. 바로 지부장이다. 현장에서 투쟁 전략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로서 지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288명의 지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조합간부 역량교육 현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ISSUE & SOCIETY

‘아바타’의 세계로 가는 관문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VR의 세계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나 간접 경험을 실제처럼 할 수 있다면? 2009년 영화 ‘아바타’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 행성을 체험하는 색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3D 촬영 등 새로운 기술이 집약된 영화 한 편으로 전세계가 열광했다.

영화 ‘아바타’ 속 주인공처럼 우리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을까? VR(Virtual Reality)을 통해서라면 조금은 가능하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현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구현된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시각적·공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체험하고 조작하거나 명령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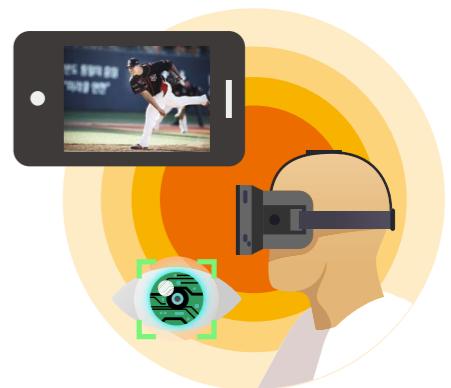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가상 현실

VR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자, 통신사들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위한 VR 콘텐츠 확보와 새로운 VR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360영상 올레 tv 모바일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음원 서비스 ‘지니뮤직’에서도 국내 최초로 음악전문 VR 서비스인 ‘지니 VR’을 론칭했다. KT는 360도 VR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달 1편의 단편 영화, 리얼리티 쇼 등을 자체 제작해 올레 tv 모바일 독점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 우수 VR 콘텐츠도 추가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60도 VR 전용관’에는 국내외 관광지, 아티스트 공연, 스타 피트니스 영상 등 약 170여 편의 VR 콘텐츠가 등록돼 있다. 엔터테인먼트, 교육,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과 편의성 높은 올레 tv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별화된 VR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KT는 지난 4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위즈 홈 개막전에서 Gi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e스포츠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결승전을 올레 tv 모바일에서 VR 생중계하고, MBC 예능프로그램 ‘주간 아이돌’을 VR 콘텐츠로 공개했다. 다만 현재 VR 콘텐츠의 대부분이 스포츠, 예능 등 일부 장르에 편중돼 있어서 대부분 단발성에 그치는데다 구형 단말기 등이 VR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는 VR의 해 vs. 아직은 시기상조

게임업계는 VR 게임에서 새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VR 기술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모바일게임 이후 새로운 대세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VR 플랫폼과 스마트 TV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VR 헤드셋 업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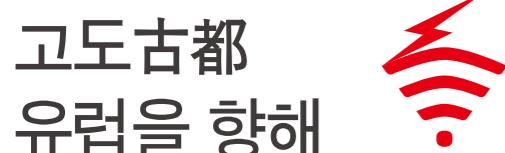


은 2016년이 VR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콘텐츠 개발자들은 VR이 전성기를 맞기엔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성능 좋은 신형 헤드셋이 나왔지만 아직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VR 하드웨어업체가 콘텐츠 생산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큘러스 리프트’를 생산하는 오culus VR사는 게임에 1천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바이브’ 생산업체인 HTC 역시 VR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결국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VR의 진화는 분명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는 무엇보다 콘텐츠 개발에 달려 있다.

한때의 유행인가? 차세대 혁명인가?

그렇다면 VR은 한때의 유행일까? 차세대 기술 혁신일까? 전문가들은 실제 VR 경험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VR 사용자 대부분은 가상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주는 고도의 몰입감에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다. 현재 1세대 VR 하드웨어가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후속 모델의 성공 가능성 역시 높다는 분석이다. 헤드셋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화면 자연시간도 감소하면서 가상현실 경험은 차츰 개선될 것이다. 더 가볍고 편안하며 연결이 자연스러운 헤드셋의 개발로 현재의 불편감은 대폭 감소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하드웨어 발전 속도에 못 미치는 콘텐츠가 한층 개선된다면 차세대 혁신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게임, 쇼핑, 공연, 전시,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의 폭넓은 확장성 또한 VR의 전망을 밝게 한다.

국내 VR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성장세는 전년 대비 5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에는 5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초기 TV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VR은 차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KT GiGA 솔루션이 진출한다

“

KT는 우수한 GiGA 인프라를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네트워크 구축 차원이 아닌 지난 130년 동안 KT가 쌓아온
첨단 IT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서
현지에 적합한 형태의 ICT 인프라를 실현하고 있다.



KT는 현재 통신망 구축형 프로젝트는 물론 미래 융합 ICT 분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로 전략 거점을 확대하려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KT의 앞선 GiGA 솔루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Global Success Story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Global Success Story의 성공적 실현을 목표로 KT는 유럽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초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사업 진출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K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GiGA LTE, GiGA Wire 기술을 터키와 스페인 등 유럽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KT는 계열사가 해외에서 올린 매출이 약 7천5백억 원으로 2020년까지 2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 TTG와 GiGA LTE 수출 계약 체결

KT는 지난 1월 터키의 Turk Telecom Group(이하 TTG)과 양사 CEO간 미팅을 통해 GiGA LTE 솔루션 및 LTE 전략 컨설팅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내 약 1,800만 명의 무선가입자를 보유한 TTG는 모바일은 물론 인터넷, 전화(PSTN) 등 유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터키 내 1등 유무선 통신기업이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KT는 TTG에 최대 1.17Gbps에 달하는 GiGA LTE를 디자인해 공급하고 솔루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KT의 글로벌기술컨설팅단은 이미 TTG 네트워크 환경 리뷰, 분석 등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마쳤고 현재 LTE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중이다.

중동영업팀을 담당하는 최남균 조합원은 "TTG는 자국 내 유선통신 분야 1위 및 이동통신 분야 3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KT와 매우 유사한 위상을 지닌 기업이며, 자국에서 확보한 기술을 발판으로 올해 4월 LTE 기술을 출시한 유망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무선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터키에서 GiGA LTE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터키에서 지속적인 GiGA 솔루션 사업성과를 옮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터키 진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터키 진출은 사업 초기부터 실물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GiGA LTE 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 4월 터키에 GiGA Wire 시범 사업

사진설명

01. GiGA LTE를 개발 중인 KT 및 TTG 직원들 단체사진
02. TTG가 이스탄불 포뮬러 경기장에서 언론 대상으로 1.15G의 최대 속도를 시연하고 있다.
03. 터키 앙카라에서 KT직원들과 TTG직원들이 GiGA Wire PoC (Proof of Concept)를 테스트하고 있다.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KT는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터키 현지에 GiGA Wire 장비를 공급해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동영업팀의 구민성 조합원은 "이번 수출계약 체결이 GiGA 솔루션 해외수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며 "터키 GiGA LTE 수출은 KT가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양사 간의 파트너십에 GiGA LTE 수출뿐만 아니라, 5G 글로벌 기술 표준, 5G 서비스 개발 등에 공동 협력이 포함된 만큼 한국의 앞선 ICT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전파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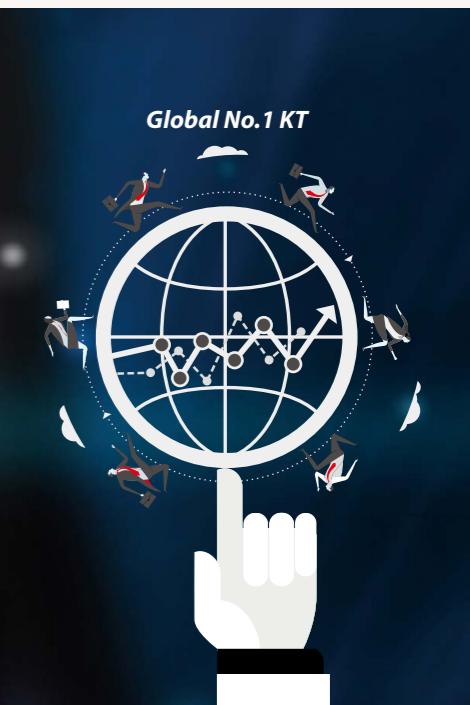
01



02



03



Global No.1 KT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GiGA Wire 구축

KT의 해외사업은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베리아반도에까지 진출했다. KT의 또 다른 세계 최초의 상용기술인 GiGA Wire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구축, 공급한 것이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 기간에 KT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정부와 MOU를 통해 GiGA Wire를 공급했다. 매년 MWC가 열리는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의 주도다.

KT가 스페인에 공급하기로 한 GiGA Wire는 광케이블이 아닌 기존 일반 구리 전화선(Copper Wire)으로 초당 600Mbps의 속도를 구현하는 첨단기술이다. GiGA Wire는 지난해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상용화기술로 등록된 이후 유럽 진출이 성사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GiGA Wire의 장점은 추가 공사 없이 기존 회선만으로 GiGA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유적지가 많은 카탈루냐 지역은 문화재 훼손 등의 우려로 광케이블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GiGA Wire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MOU 체결에 앞서 이미 바르셀로나 현지 임대협회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APBCN 아파트에 기가 와이어 솔루션을 구축,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 최대 10Mbps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던 입주 고객이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품질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었음을 입증했다.

GiGA Wire 서비스는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의 임대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연간 700만~8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바르셀로나는 호텔 요금이 비싸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들을 위한 우수한 품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 관광객을 맞는 바르셀로나 현지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배가될 전망이다. 바르셀로나 아파트 임대협회와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GiGA Wire, GiGA WiFi 등 최신 솔루션 도입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ICT 관련 사업 및 서비스 분야에까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또한 카탈루냐 주정부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가 솔루션 제공 및 ICT 산업의 사업 분야까지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01. KT 글로벌사업추진실장 임태성 전무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파트 임대협회 엔리크 알칸타라그라시아 협회장이 MOU를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02/03. GiGA Wire가 구축된 APBCN 아파트에서 현지인들이 GiGA Wire로 빨라진 인터넷 속도를 체험하고 있다.

유럽을 발판으로 조합원들이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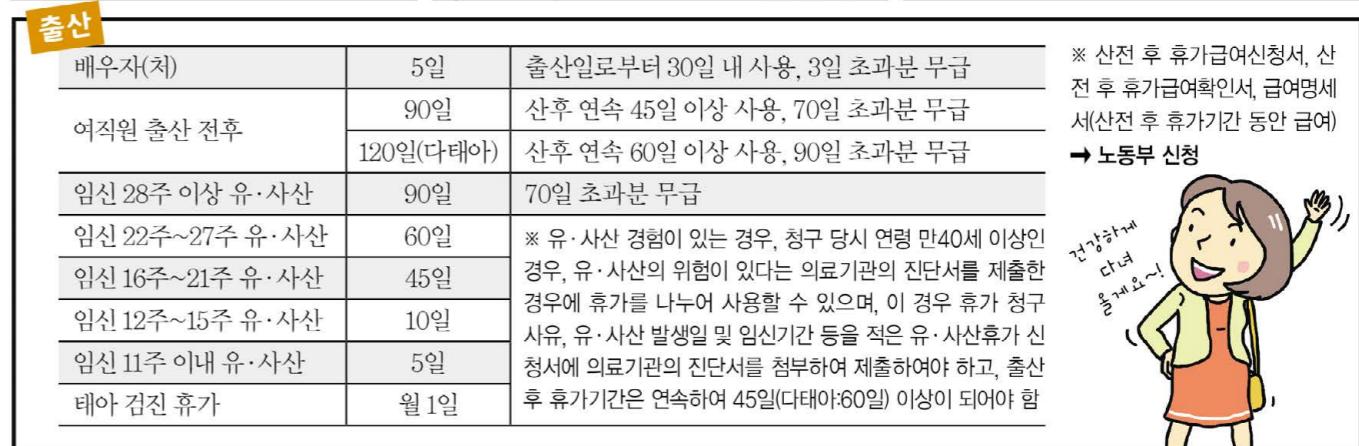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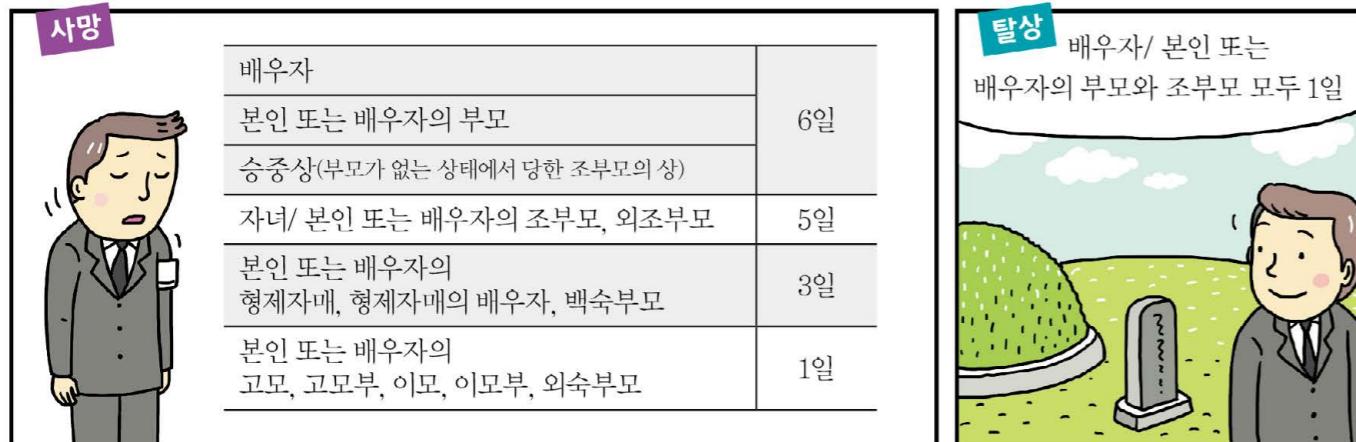
오래된 도시를 품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은 새롭게 케이블 공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도심과 시가지에 문화재 및 사적이 가득해 첨단 통신시설은 물론 수도나 전기 매설공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만큼 유럽에선 K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GiGA Wire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존 구축된 구형의 구리선만으로 GiGA급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덕에 KT의 GiGA Wire는 스페인은 물론, 도심 곳곳에 유적지가 산재해있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체코 등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바르셀로나를 수없이 방문하며 카탈루냐 정부와 아파트협의회와 계약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유럽영업팀 정병수 조합원은 "KT GiGA Wire는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맞추어진 서비스인 만큼 GiGA Wire 보급이 본격화되면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 KT는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유럽 전 지역에 GiGA Wire 기술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GiGA Wire 뿐만 아니라, GiGA WiFi 등도 확대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GiGA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병수 조합원은 "KT의 풍부한 노하우와 우수한 GiGA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확산시켜 대한민국 첨단 ICT 기술력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작더라도 Reference를 많이 만들어 차근차근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유럽 진출에 관한 포부를 밝혔다.

Global No.1 KT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KT는 우수한 GiGA 인프라를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네트워크 구축 차원이 아닌 지난 130년 동안 KT가 쌓아온 첨단 IT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서 현지에 적합한 형태의 ICT 인프리를 실현하고 있다. 터키에 공급되는 GiGA LTE는 LTE와 WiFi가 결합한 모바일 속도로 터키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카탈루냐에 제공되는 GiGA Wire는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 600Mbps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해 바르셀로나 여행의 새로운 트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 글로벌사업추진실은 이러한 노력들을 '글로벌 1등'을 달성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대한민국 대표 통신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Global No.1 KT'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



이것만은 꼭! KT wiz 팬이 알아야 할 KT 위즈 파크 꿀팁 완전정복

KT wiz가 데뷔 후 두 번째 시즌을 맞았다. 지난 4월 1일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가 개막한 가운데, 팬들의 관심은 한결 뜨겁다. 이에 보답코자 창단 데뷔 첫 해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 KT wiz가 올 시즌 팬들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팬을 위한 편(Fun)마케팅의 원년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KT wiz, 홈경기 VR 생중계와 VOD서비스, 친화적인 구장 시설 개선 등 팬 인식 1등 구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KT wiz의 행보에 발맞춰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KT위즈파크 만의 달콤한 팁을 날낱이 살펴보자.



KT 위즈 파크 좌석 배치도

Tip 하나!

경기가 짜릿해진다 GiGA VR

Virtual Reality의 약자인 VR은 가상현실을 말한다. KT는 지난 3월 26, 27일 시범경기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VR야구 생중계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Gi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를 위해서는 스티칭(Stiching) 기술과 초고속 네트워크 실시간 전송 기술이 사용 되는데, 여기서 스티칭 기술이란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고화질 VR 영상을 360도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VR 카메라가 포수 후면석과 1,3루 응원 단상 경기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팬들은 더욱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홈 개막전에서 KT wiz는 바로 이 VR 모바일 생중계 기술을 선보였다. 선착순으로 경기장에 입장한 2천명의 팬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V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카드보드를 제공, 팬들은 홈구장 곳곳에 설치된 GiGA WiFi와 LTE를 통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360도 VR 영상을 돌려 눈앞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 같은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현재 수원 KT위즈파크 외야 쪽 하이트 펍 2층엔 국내 최초로 VR 전용석이 신설되어 있다. 향후 KT wiz는 야구 중계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GiGA VR 기술을 이용해 야구경기 하이라이트를 VR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VR 콘텐츠도 기획할 예정이다. 내 눈 앞에 펼쳐지는 짜릿하고 색다른 야구 중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경기장에서 직접 VR을 체험해 보자.

Tip 둘!

파크 내 숨은 편의시설 찾기



KT위즈파크의 시설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포수뒤편 프리미엄 좌석이 20석 증축된 것을 비롯해 외야 하이트 펍, 다크 게임룸, VR 체험 존 등 야구경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또 BBQ존에는 자외선 차단막을 새로 설치해 보다 쾌적한 관람이 가능해졌고,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 룸과 수유실 또한 업그레이드 됐다. 그밖에도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과 장애인 팬들을 위한 훨체어 좌석, 그리고 무선충전기 대여 서비스까지. 야구 경기도 즐기고 편의까지 제공받는 1석 2조의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Tip 셋!

빵빵한 인터넷, GiGA WiFi

KT위즈파크에는 다른 경기장에선 볼 수 없는 스포츠 구장 전용 WiFi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KT 융합기술원에서 경기장 전용으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GiGA WiFi다. 이 WiFi는 다른 야구장 대비 3배 이상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KT wiz 홈페이지와 KT wiz 야구단 공식 어플인 'wizzap'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야구장에서도 멈추지 않는 빵빵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KT wiz 팬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또 하나, KT의 앞선 5G 서비스도 KT 위즈파크에서 체험 할 수 있다. 이제는 4G를 너머 5G 시대가 다가온다. 현재 경기장 내에는 ICT 체험관 KT Square in Wiz Park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VR, 드론, 홀로그램과 같은 5G 콘텐츠 체험 그리고, 스크린 야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GiGA 스트라이크존 등 5G 통신의 최첨단 서비스 시설이 마련되어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풍성한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다.



Tip 넷!

시원한 여름축제 WATER FESTIVAL



KT wiz 구단이 존재하기 위해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은 당연한 법. KT wiz는 팬들의 끝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작년 8월 GiGA LTE Water Festival을 개최했다. GiGA LTE Water Festival은 워터 워킹 볼, 수중 외나무다리, 워터 캐논 등 무덥고 힘든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KT wiz 만의 팬 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행사를 진행하는 KT wiz가 올해는 또 어떤 이벤트로 팬들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지. KT wiz를 응원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축제 한마당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2060 샐러리맨, 논어論語에서 길을 묻다

2030,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춰나갈 것

세한 연후지 송백지 후조야

歲寒 然後知 松柏之 後彥也

“추운 겨울이 되고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팽팽한 한여름에는 모든 초목이 푸르고 우거져 있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에는 침엽수만이 한여름의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양상한 나뭇 가지로 변한 어느 활엽수와 달리 소나무와 잣나무가 한결 같을 수 있는 것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여름부터 척실히 다져왔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직장인들이 소나무와 잣나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평소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 브랜드’의 수준으로 본연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브랜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어떤 부서이건 중요한 것은 업무 노하우다. 평소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자. 한 달에 한번 자신의 업무를 보고서로 정리해 두면 훗날 자신의 커다란 밀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축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040, 다음 10년을 준비할 과장급의 고민

불활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 야이의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 也已矣

‘어찌 할까, 어찌 할까,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에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따로 있지 않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조차도 어찌할 수 없으니 천하의 현자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궁리는 언제 해야 할까. 직장인들은 대개 퇴직 후 ‘어떻게 할까’하고 고민 하지만 정작 재직 중에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재직 중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퇴직 후에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요즘 직장인들은 힘들다. 모나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약삭빠른 처세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골치 평나 아픈 직장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과거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한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말씀 하나하나가 온고지신으로 다가온다.

4050,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면 다른 이의 멘토가 될 만하다”

온고지신은 옛 학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연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공자는 옛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 시대에 새롭게 적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옛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회사에서 떠나는 선배를 보며 ‘나는 저렇게 밀려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보게 된다. 떠나서도 대부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치킨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것은 온고지신이 될 수 없다. 온고지신이란 단순히 주어진 것만 소극적으로 익히는 것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추론하는 것을 뜻한다.

5060, 리더가 되어 있을 당신에게

여인가이선 필사반지 이후화지

與人歌而善 必使反之 而後和之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고 좋은 점을 따라 부른다”

공자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노래 실력이 좋은 제자에게 후한 칭찬을 했다. 칭찬을 받아 기분이 한껏 좋아진 제자는 다시금 노래를 부르며 다른 제자들이 노래를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전수했다고 한다. 공자는 제자의 훌륭한 재능을 발견함과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그 재능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리더일수록 타인의 장점을 보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색안경과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조직 전체를 위해 그러한 편견은 버리는 것이 옳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공자는 가르친다. 나도 나중에 할 수 있다 는 가능성 있어야 진심으로 칭찬을 할 수 있다.

2016 조합원 하계휴양소 20곳 선정

7월 15일~8월 14일까지 이용 가능

올 여름 조합원들이 이용할 하계휴양소가 선정됐다.

전국의 20개소로 구성된 하계휴양소는 더욱 고급화된 시설과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조합원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즐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올 여름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계휴양소는 모두 20개소. 지난 여름 조합원들이 이용한 기준 10개소와 더불어 10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준 하계휴양소는 조합원들의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 하위 80%에 해당하는 휴양소를 대상으로 객실과 부대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현장실사 결과 조합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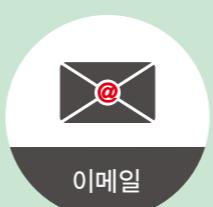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하계휴양소 역시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됐다. 첫째,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객실과 부대시설이 고급화되고 현대화된 휴양지일 것. 둘째, 가능한 해안가에 자리 잡거나 자체적 휴양시설을 갖춘 유명 리조트일 것. 셋째, 주변 관광지와의 교통접근성이 원활하고 휴양시설로서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 등이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20개소 330실에 달하는 하계휴양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계휴양소는 지역별로 강원도와 경상도가 각각 5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라와 충청이 각각 3개소, 제주와 경기 가 각각 2개소 등이다. 테마별로는 해안에 속한 휴양소가 9개소로 가장 많고 일반 휴양지 5개소, 워터파크 3개소, 도심유원지 2개소 등이다.

조합원들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려면 ERP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승인작업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정기 배정은 6월 20~29일까지 신청기간을 거쳐 6월 30일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 직원에 대해 휴양소 입소 안내 메일 1회, MMS 2회를 전송하고 (1박당 5천원) 기준 기프티쇼가 제공됩니다.



하계휴양소 승인 안내 메일 및 문자 전송



이메일



문자



Step 01 | 3일전 휴양소 입소알림 및 기프쇼 제공

Step 02 | 휴양 종료



전국 하계휴양시설



- 시설 : 20개소 330실
- 신청기간 : 6.20(월) ~ 6.29(수)
- 운영기간 : 7.15(금) ~ 8.14(일) 1개월
- 승인일 : 6.30(목)

2016년 권역별 전국 하계휴양소

권역	지역	시설명	테마	객실명	면적	형태	인원	취사	특징	연락처
강원	정선	하이원 리조트	휴양	마운틴콘도-디럭스	35	룸2+거실+욕실2	최대7인(기준5인)	가능	다양한 놀이시설	1588-7789
	정선	하이원 리조트	휴양	힐콘도-슈페리어	30	룸2+거실+욕실2	최대6인(기준4인)	가능	다양한 놀이시설	1588-7789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워터파크	스탠다드 20평	20	룸+거실+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가능	워터파크 (물놀이)	033-330-7511
	속초	마레몬스호텔	바다	슈리어스위트	17	원룸형+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간단 취사	바다전망	033-630-7000
	속초	낙산에어포트	바다	26평	20	룸2+거실+욕실	최대8인(기준6인)	가능	해수욕장 인접	033-672-5114
경북	원주	한솔 오크밸리	휴양	골프빌리지-노블	31	룸2+거실+욕실2	최대6인(기준4인)	가능	이국적인 시설	1588-7676
	문경	문경새재 리조트	휴양	패밀리	27	룸+거실+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가능	좋은 경치 문화체험	054-572-5100
	경주	이스트힐리조트	휴양	25평	25	룸2+거실+욕실	최대7인(기준5인)	가능	주변 유명 관광지	054-745-5100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바다	디럭스	10	원룸형+욕실	최대4인(기준2인)	불가능	해수욕장 인접	051-743-1234
	해운대	그랜드호텔	바다	디럭스 13평	12	원룸형+욕실	최대4인(기준2인)	불가능	전객실 옵션부	051-740-0114
	중구	크라운하버호텔	도심	주니어스위트	18	원룸형+욕실	최대4인(기준2인)	간단 취사	교통 접근성 용이	051-678-1000
전남	목포	목포현대호텔	바다	디럭스10.6평 -산전망	11	원룸형+욕실	최대4인(기준2인)	가능	바다 인접	061-463-2233
	곡성	곡성강빛마을펜션	휴양	16평형	16	룸+거실+욕실	최대6인(기준3인)	가능	한옥체험	061-636-5366
전북	군산	유로빌리지36	휴양	콘도형	27	룸2+거실+욕실	최대8인(기준4인)	가능	독체형 팬션	063-471-1112
	태안	호텔머드린	바다	스탠다드	9	원룸형+욕실	최대4인(기준2인)	불가능	전객실 옵션부	041-934-1111
충남	천안	테딘패밀리리조트	워터파크	플래티넘31평	31	룸2+거실+욕실2	최대7인(기준5인)	가능	워터파크 (물놀이)	041-906-7000
	단양	대명리조트 단양	워터파크	스위트형19평	19	룸+거실+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가능	워터파크 (물놀이)	1588-4888
제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바다	패밀리14평	14	룸+거실+욕실	최대4인(기준3인)	간단 취사	이호해수욕장	1577-9766
	제주	다인리조트	바다	19평	19	룸+거실+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가능	다양한 부대시설	064-799-2600
경기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휴양	1베드룸스위트	19	룸+거실+욕실	최대4인(기준2인)	가능	테마빌딩 전망	032-726-2000
	인천	영종스카이 리조트	바다	디럭스31평	31	룸2+거실+욕실	최대6인(기준4인)	가능	을왕리 해수욕장 전망	032-745-9000

해변에서 찾은 안식(安息) 바닷바람을 가르는 해안도로 여행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여러 가지 작물을 섞어심고 이듬해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돌려짓기를 했으며,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땅을 쉬게하는 휴경(休耕)을 했다. 오랜 경작으로 약해진 '땅심'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땅도 이럴진대 사람은 오죽할까? 휴식은 더욱 알차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안식년 휴가 및 여름휴가 등 휴식을 맞은 조합원들에게 해안선을 따라가는 도로 여행을 제안해 본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다보면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노라면 깊은 걱정 근심도 아스라이 멀어질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해안도로를 따라 재충전의 여행을 떠나보자.



강화도 강화해안도로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릴만큼 유구한 역사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보면 소박하고 정겨운 해변은 물론 풍부한 역사 유적 까지 두루 만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사시대 고인돌 군부터 19세기 말 호국의 역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불어 살아 숨쉬는 갯벌과 시원한 바다가 내내 동행해 주니 지루할 틈이 없다. 강화대교를 건너 남쪽으로 해안순환도로변에 용진진, 화도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이 늘어서 있다. 김포 대명 포구와 강화 초지진을 잇는 강화도 남단 초지대교를 이용한 드라이브 코스는 강화도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특히 강화도 화도면 동막리의 동막해수욕장에서 여차리, 장화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그 위에 드문드문 떠 있는 고깃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아득히 먼 바다 남쪽으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와 서쪽으로는 석모도와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같은 크고 작은 부속 섬들이 점점이 떠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백수해안도로는 바다와 해안 절벽을 따라 물드는 서해안 노을이 절경이다. 국도 77호선, 군도 14호선으로 영광의 칠산 앞바다를 끼고 16.8km가량 이어진다. 칠산이라는 지명은 영광 앞바다에 떠 있는 일곱 개의 섬을 가리킨다. 백수해안도로의 본격적인 드라이브 코스는 모래미 해변을 지나 경사진 길을 오르면서 시작된다. 금빛 갯벌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파도가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동해안 뜻지않은 절벽이 굽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도로 아래로 푸른 바다가 탁 트인다. 해안절벽 사이로 솟아 있는 기암괴석과 암초들은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위에 부딪혀 새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묵은 근심도 씻겨 내려간다. 백수해안도로 최고의 전망대는 칠산정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가파른 산비탈과 바위 사이로 놓인 길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푸른 바다와 함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칠산정 아래 설치된 목책 산책로인 '건강365계단'은 도보 길로 유명하다. 숲길을 따라 조성된 나무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서해와 마주하게 된다. 바다를 끼고 나무 데크를 따라 걷다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차분히 정돈된다. 이곳에서 노을전시관에 이르는 2.3km의 목재데크 산책로는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은 노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으며 전망대에서 직접 노을을 볼 수도 있다. 노을전시관 인근의 광해수온천은 지하 600m 암반에서 솟아나는 27도의 해수탕이다. 산책 후에 온천탕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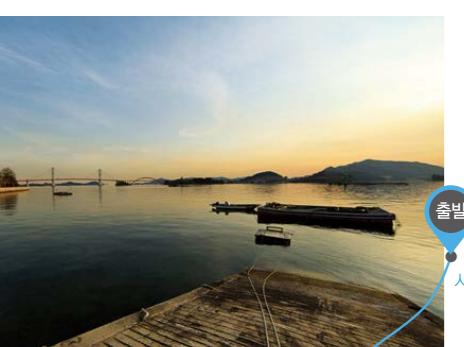
강원도 동해안 낭만가도

국도 7호선은 한반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나란히 이어진 명품 드라이브 길이다. 그 가운데 고성에서 삼척을 잇는 강원도 구간을 '낭만가도'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동해를 따라 약 4.6km 남짓 어어지는 새천년해안도로는 동해안에서도 으뜸가는 해안절경을 자랑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해안가를 따라 푸른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여름에는 해수욕과 스키스쿠버를 즐기며 낚시도 할 수 있다. 도로 정상에 우뚝 서있는 새천년 소망의 탑도 볼거리이다. 소망의 탑 주위에는 비치조각공원 등의 쉼터가 함께 있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기 좋다. 그 중 백미는 소망의 탑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는 것이다. 소망의 탑과 고깃배, 날아가는 갈매기가 한 데 어우러진 일출이 큰 감동을 자아낸다. 이곳에는 '낭만가도'라는 이름답게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다. 궁촌역과 용화역을 오가는 삼척해양레일바이크가 대표적이다. 두 역에서 모두 출발하며, 하차한 역에서 서틀버스를 타고 승차한 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5.4km 구간으로 곰솔숲과 루미나리에 터널 등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레일 바이크를 달리는 기분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망상에서 옥계에 이르는 동해대로 구간은 바다를 끼고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 철길이 나란히 달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충남 태안 안면도해안도로

푸른 자연과 멋스러운 바다 전망이 함께 하는 태안의 보석 같은 섬, 안면도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안도로가 인기다. 안면도해안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 이름을 올렸다. 안면읍 중장리와 정당리를 잇는 11.5km의 국도 77호선과 승언리에서 창기리까지 11.1km의 군도 14호선으로 안면송길과 바닷길이다. 안면도해안도로는 백사장항에서 시작해 꽃지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데 사이사이에 삼봉, 기지포, 두여, 밧개, 방포 등 10여개의 해수욕장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울창한 숲길에서 푹신한 흙을 밟으며 재충전을 하기에 좋은 백사장항도 매력적이다. 꽃지는 '꽃 연못'이라는 의미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태양이 할매바위 너머로 서해를 뚫게 물들이는 노을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꽃지해수욕장에서 안쪽으로 10여 분이면 안면도자연휴양림에 도착한다. 푸른 바다와 안면도자연휴양림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다. 100년 된 흥송들이 군락을 이룬 천연 소나무 숲에 이르면 몸과 마음까지 청정해지는 기분이다. 특히 한국 전통가옥을 재현한 아산정원은 주변 야생화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면도해안도로는 낭만적인 바닷가를 산책하고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는 바다 여행의 운치가 가득하다.



경남 사천 실안해안도로

사천 실안해안도로는 사천만으로 지는 노을이 특히 아름답다. 사천대교를 지나 삼천포대교가 있는 대방동까지는 약 7km. 넘실대는 파도 옆으로 구불구불 길게 뻗은 해안도로는 명품 드라이브 코스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 위로 솟은 크고 작은 섬들과 등대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고, 해 질 무렵 바다는 붉은 온기로 가득하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9대 일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경남 사천의 '실안낙조'다. 실안해안도로 앞바다에는 저도, 마도, 둉근섬, 신섬, 늑도, 학섬, 초양섬, 모개섬, 코섬 등이 연이어서 점점이 떠 있다. 해안도로 중간 '실안낙조'에 차를 세워 두고 바다를 바라보면 그곳이 바로 일몰 감상 포인트. 사천만 건너편으로는 남해대교도 아스라이 보인다. 대나무 밭을 엮어 만든 원시 어업도구인 죽방렴과 작은 섬들, 바다와 일몰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룬다. 특히 호수처럼 잔잔한 사천만의 푸른 바다와 해안 주변의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오조한 해안을 배경으로는 군데군데 아름다운 찻집들이 늘어서 있다. 전망좋은 찻집에 들러 섬 사이로 지는 일몰을 바라보면 세상 시름도 절로 잊힌다. 실안해안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삼천포대교가 시작된다.



전북 변산해안도로

변산반도는 해상국립공원답게 완벽한 '관광종합선물세트'에 가깝다.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는데, 백사장 양 끝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눈길을 잡아끈다. 부안댐,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격포항, 내소사, 곰소항 등 전국에 알려진 여행지가 풍성하다. 거기다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남쪽 지점이라 이를 연계한 여행에도 안성맞춤이다. 변산을 순환하는 해안도로는 서해의 멋진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하다. 곰소항에서 출발해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 북서 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보석 같은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곰소를 지나 석포 삼거리에서 오른쪽 내륙 방향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천년 고찰 내소사에 닿을 수 있다. 633년(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는 능가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일주문부터 천왕문 앞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전나무 숲이 특히 인상적이다. 남쪽 해안에 있는 국립 변산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 해안형 휴양림으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휴양림이다. 휴양림 내부에는 습지생태관찰원이 있어 다양한 자생식물을 만날 수 있다. 휴양림 가파른 숲길에 서면 넓은 서해와 휴양림이 한눈에 보인다. 휴양림과 가까운 모항에서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해넘이공원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격포해수욕장을 지나 변산마실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중생대 백악기 층암질벽인 채석강과 적벽강을 만날 수 있다. 기묘한 주상절리와 동동 잘 깎여나간 돌개구멍, 봉돌들이 널려 있다. 화산지형 중 하나인 '페퍼라이트'는 고고한 느낌을 한층 더해준다.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서대구지부 도수미

유용하지만 놓치기 쉬웠던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복지혜택 및 여러 다양한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충청무선운용센터지부 이남수

초등학생 자녀 학상영어 교육 대상자 후기 인터뷰를 통하여 저 또한 이번에 초등 6학년인 딸이 원어민과의 일대일 학상 교육을 받음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실력이 늘고 교육비 부담도 줄게 되어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충남고객본부지부 허인우

노동조합 소식지가 날로 실속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엑스라 당월은 정독했습니다. 특히 병기제도는 직원들이 알듯하면서도 모르는듯한 그런 내용인데 알기 쉽게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강성범

현실에 치여 잘 쳐다보지 않던 노동조합 소식지를 한 장씩 읽어보니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희망의 길잡이로 변모하는 것 같아 감사 드립니다. 기존 담당들과 담당지만 어렵뜻이 일던 회사의 병기제도를 만화로 표현해서 이해가 쉬웠으며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가 추진되어 정정당당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조합원이 꿈을 꾸고 희망을 준비하는 하루 일상을 상상해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행복을 주는 알찬 정보를 기대합니다.

전남고객본부 문정기

소식지를 받아볼 때면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하는 호기심을 갖고 첫 페이지를 펼쳐 됩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는 물론 항상 새롭고 다양한 소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잘 읽고 있습니다. 다음 호가 또 기대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사회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회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강서무선운용센터지부 정성근

비쁜 업무 속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소식지를 보며 웃음을 찾곤 합니다. 최근 부모님을 모시고 봄 여행지를 찾던 도중 소식지에 소개된 고창의 청보리밭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청명한 봄기운에 가슴이 턱 트이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보고자 조만간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기업고객컨설팅센터지부 김성택

형형색색 이름다움을 전달하는 봄의 전령사 꽃을 찾아 여행할 수 있는 봄나들이 명소들을 지역별로 알려주는 소개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보면 시기를 놓쳐 후회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호에서 명소들을 소개해줘 장소 결정하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연휴에 가족과 함께 명소를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서대구지부 신지원

좋은 기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노보를 통해서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지부 박창섭

이번 호에서는 모든 글이 좋았지만 특히 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 꿈나무 이동 후원 및 사랑나누기 후원봉사가 너무나 훈훈해 보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KT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후원과 봉사에 적극 참여해길 바랍니다. 항상 소식지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산지부 김교원

이따금 소식지 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기다리던 소식지가 책상에 딱 올라와 있을 때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바빠서 놓칠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소식을 챙겨볼 수 있어 좋습니다.

KTTU QUIZ

1							
2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기로 1 집 안에 있는 생활기기를 밖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8페이지 참고)

기로 2 올레 tv 게임에 연결하면, 바이크 움직임에 따라 게임 미션 별 페달 무게 변경과 핸들이 진동하는 제품으로 게임과 운동을 동시에 즐기는 제품은? (10페이지 참고)

세로 1 한국 프로야구의 '10번째 심장' kt wiz의 홈구장의 명칭을 맞혀주세요. (22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온플랜

KT 노동조합

다온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온플랜은 KT 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 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온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온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온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다온플랜

가입문의 | 1577-1555 www.daonplan.com | 경기도 분당구 불정로 90